

숨과심

삼애교회 목회서신

2020. 4. 12. 제39호

연세대학교 삼애교회
편집 발행인 김동환
031-975-1885, 1884(fax)
<http://samae.yonsei.ac.kr>
love3@yonsei.ac.kr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로 160-30

부활의 신비

행 10:34-43, 요 20:1-10

여러분은 정말로 부활을 믿으십니까? 기독교의 핵심이지만 가장 믿기 어려운 내용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성적으로 믿기 어려운 부활을 믿고 있다는 것은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부활의 신비를 신앙으로 품게 된 사례로서 베드로를 소개합니다.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 사역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목격한 증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목격한 모든 사건들 중 예수의 부활은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놓았습니다. 실제로 부활을 목격하기 전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와 부활을 목격한 이후 사도 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부활 목격 전 베드로는 열정이 있고 의리가 있었지만 변덕이 다소 있고 믿음도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요 13:37)고 했고, 예수와 함께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마 26:35)고 장담하더니, 예수께서 잡혀가시고 나서 본인도 예수와 한패였다는 의심을 받자 곧바로 예수를 세 번이나 부인하되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마 26:72-74). 심지어 부활 사건 직후에도 이런 부족하고 믿음 없는 모습은 여전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의하면 함께 무덤으로 달려갔던 다른 제자는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8절)고 되어 있으나 그보다 먼저 무덤 안에 들어간 베드로가 믿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에 의하면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삼베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던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진 터닝 포인트가 있었으니 이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면대면하게 된 이후입니다. 계속 부활을 미심쩍어한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세 번째로 나타나셨을 때, 아침을 함께 드신 후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수제자 베드로와 일대일로 단판을 지으십니다. 그게 그 유명한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건입니다. 세 번 묻고 답을 받으신 후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요 21:19). 바로 이 순간 베드로는 완전히 바뀌었을 것입니다. 예수 사역 처음에 나를 따르라고 제자로 부를 때 어부 일 다 그만두고 따랐던 베드로가, 이 마지막 말씀에 그간의 의심과 부족함을 다 내어 던지고 진정한 수제자로 다시 거듭났을 것입니다.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을 참된 수제자로 다시 부활한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도 직접 부활하신 주님과 면대면을 하니 변화된 것을 보면, 지금 면대면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부활주일에 부활 신앙을 제대로 다시 점검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도 어디서든 누구든 예배드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신앙생활에서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머리로 생각하여 믿는 종교가 아니라 온 몸으로 체험하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체험을 위해선 정신과 영도 중요하나 육체도 중요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분이 바로 예수이십니다. 그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와서 보아라”(요 1:39) 곧 체험하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도 철저히 육신의 고난이었습니다. 부활도 총체적이나 구체적으로는 육신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the resurrection of the body,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영생)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의 부활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가 장차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라고 했으며,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나팔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육신의 부활은 비밀이요 신비입니다. 신비로운 예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인은 장차 올 신비로운 본인의 부활도 믿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이는 분명 이성적으로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신비 그 자체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을 이어받은 초대 교부 성 어거스틴은 생판 모르던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신비(mysterion)이라 했습니다. 또한 결혼예식과 같이 교회의 성례식 곧 세례식과 성찬식도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신비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주님과의 예전적인 신비로운 연합을 성례(sacramentum)라고 합니다. 세례를 통해 주님과 함께 연합된 삶을 살고 교인이 되는 성례식은 신비입니다. 성찬을 통해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으로써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되어 나와 주님이 하나가 되는 성례식도 신비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찬식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 역시 언젠가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신령한 몸으로,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도 신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활의 신비는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증언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머리로 생각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목격한 베드로가 증언하는 것처럼 나의 삶의 체험을 통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않고는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되지 못하였던 것처럼, 아무리 머리로 세례문답을 외우고 정답을 말해도 결국 교회에 나와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입교를 하여 교인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성찬식에 직접 참석하여 빵과 포도주를 직접

먹고 마시지 않고서는 주님과 한 몸이 되었다고 선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어떠한 기회를 통하여든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하고서는 참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체험의 신앙의 핵심이 바로 부활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부활을 직접 체험하였기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실수가 많고 스승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며 배신하던 사람이 삼천 명을 전도하는 설교자로 거듭났고, 불구자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였으며, 죽었던 도르가라 불리던 다비다를 살리는 이적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체험이 본인의 체험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부활의 신비를 머리가 아닌 온 몸으로 받아들이고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했기에 부활 신앙은 베드로의 신앙이 되었고, 부활 신앙을 완벽히 갖춘 그는 생명을 살리는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었으며, 사람을 낚는 어부 곧 죽음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도록 사람들을 인도하는 부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니 부활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내신 부활이라는 신비를 내 삶의 신비로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 신비를 내 삶의 신비로 경험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내 삶의 구세주로 모시고 그 분과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을 통해 영생을 얻는 구원을 누리시겠습니까? 그런 믿음과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귀한 부활 절기에 놀랍고도 신비로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진정으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함으로써 주님이 부활했듯 나도 부활하고, 나의 가정도 부활하고, 우리 교회도 부활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우리 이웃도 부활하고, 썩어져 가는 이 온 세상도 부활하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베드로가 부활의 신비를 체험하고 실천하여 이루어 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루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김 동 환 목사 (2020. 4. 12. 주일예배)